濟州島硏究 제47집
2017. 2. pp. 49~93.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

이호룡*

국문요약

제주도에서의 아나키즘 수용은 고순흠, 고병희 등 서울이나 일본으로 유학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1925년 무렵 제주도에는 아나키스트가 65명이나 되었다.

제주도 아나키스트들 역시 반제국주의와 반공산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반민족주의적 입장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는 육지와 달리 아나코생디칼리슴이 일찍부터 수용되어 아나코코뮤니즘과 함께 아나키스트계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제주도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운동은 생산자조합이 아닌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강기찬, 고영희, 조대수, 김형수 등은 비밀결사 '문고'를 결성한 뒤, 때때로 회합을 가지면서 아나키즘을 연구하였다. 1927년 10월에는 소비조합을 결성하여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고병희와 조대수는 소비조합을 통해 그 지방의 생산기관과 교통기관을 장악하기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도로서 우리계를 결성하였다. 우리계에는 거의 모든 분야와 지역의 인사들이 총망라되었다. 우리계는 1929년 9월 각 동리에 야학을 개설하여 교육운동을 펼치는 한편, 자주운항운동에 동참하였다.

* 덕성여대 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우리계 관계자들은 기업동맹 기선부와 합작하여 제주도-오사카 항로 경영에 나섰다. 이들은 제주도-오사카 항로를 제주도민 전체의 직영으로 경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자주운항운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아나키즘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주도 출신 아나키스트들은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아나키즘 선전작업과 조직사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신진회 등을 중심으로 반민족단체 상애회와 조선인협회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주제어 : 반제국주의, 반공산주의, 아나코생디칼리슴, 소비조합, 조대수, 고병희, 강기찬, 고영희, 김형수, 문고, 우리계, 기업동맹 기선부, 자주운항운동, 일본상품 불매운동

Ⅰ. 머리말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은 일제의 강점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했다. 한국인의 민족해방운동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에 의해 주도되어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아나키스트들도 국내, 일본, 중국 등지에서 테러활동, 농민자위운동, 민족해방운동기지건설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민족전선운동, 비밀결사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민족해방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아나키스트들은 민족주의자·공산주의자와는 다른 독자적인 민족해방운동노선과 자주적 민주국가상을 제시하면서,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주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나키스트들에 의한 민족해방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염인호의 「일제하 제주도에서 전개된 아나키즘운동」(1993)과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의 「오사카-제주도 항로의 경영과 제주도 민족자본」(2010)이 있을 뿐이다. 김찬흡

에 의해 「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1986~1990)가 발표되었지만, 이는 고순흠의 생애를 정리해놓은 것으로 본격적인 연구라고 하기는 어렵다.

염인호의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운동을 정리하면서 공산주의운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 전개된 한국인의 아나키스트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운동이 국내의 아나키스트운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고립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제주공제조합을 아나키스트 조직으로 파악하거나, 기업동맹 기선부가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체된 것으로 서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잘못 복원하기도 하였다.

츠카사키 마사유키의 연구는 일본 내 일간신문 등을 이용해서 기업동맹 기선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오류를 많은 부분 바로잡았다. 하지만 자주운항운동을 제주도 민족자본과 연결시켜 이해하려고 할 뿐, 국내 아나키스트운동과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다. 이리하여 제주도 아나키스트운동의 역사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운동은 국내 아나키스트운동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공산주의운동과의 관계뿐 아니라 국내 아나키스트운동과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운동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한국인의 아나키스트운동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제주도 내에서 일어난 아나키스트운동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일제의 강점 이후 많은 제주도민들이 일본 오사카로 도항하여 또 다른 제주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본 오사카로 건너간 제주도 출신 아나키스트들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아나키즘 선전활동과 조직활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오사카에서 전개된 제주도 출신 아나키스트들의 활동도 연구범위에 포함시켜 약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아나키

즘이 제주도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볼 것이다. 제주도 출신 고순흠(1893. 1. 14)은 국내 아나키즘 수용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를 중심으로 아나키즘이 제주도로 유입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둘째, 국내 아나키스트운동의 흐름과 비교하면서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의 사상과 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주운항운동은 제주도에서 전개된 주요한 아나키스트운동 중의 하나로, 국내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1920년대 후반이 되면 국내에는 관서흑우회를 중심으로 아나코생디칼리슴이 확산된다. 아나코생디칼리슴은 생산자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운영의 기본단위로 규정하면서 소생산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주운항운동 역시 공동투자로 조합을 설립하여 운항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 아나코생디칼리스트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셋째, 제주도에서 아나키스트단체가 결성되는 과정과 그 활동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 후반 우리계가 결성되어 자주운항운동을 주도하였다. 우리계의 결성과정과 자주운항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자주운항운동 외에 어떠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넷째, 제주도 아나키스트운동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인은『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2001),『한국의 아나키즘-운동편』(2015)을 통해 한국 아나키즘의 사상과 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운동이 국내에서 전개된 아나키스트운동과 비교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물론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운동은 기본적으로는 국내 아나키스트운동과 그 흐름을 같이 할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운동 또한 지역적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일본 오사카에서 전개된 한국인 아나키스트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910년 후반 이후 많은 제주도인들이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아나키스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제주도의 아나키스트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Ⅱ. 아나키즘 수용

제주도는 본토와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의 영향으로 제주도 주민들은 상당히 아나키스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아나키스트들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을 부정하고 오직 평등과 상호협조의 자치조합만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생활방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다.(이영권, 2005: 305) 과거 제주도민들은 본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한 공동체의식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중앙으로부터 착취당하고 버림을 받아온 고장인지라, 생존 방식으로서 강한 공동체의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공동체 정신에 투철했던 제주도 주민의 정서는 중앙정부를 부정하는 아나키즘과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다. 제주도 주민들은 마을 단위로 독립적으로 상부상조의 자치생활을 영위하다가, 외세에 의한 침탈이 발생하면 일제히 궐기하여 공동체적으로 대응해 왔다.(현기영, 2003: 49~50)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하여 제주도에는 아나키즘이 널리 보급될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1920년대 초 유입되기 시작한 아나키즘은 많은 동조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아나키즘 수용은 고순흠, 고병희 등 서울이나 일본으로 유학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주도 출신으로 아나키즘을 가장 먼저 수용한 사람은 고순흠인 것으로 보인다. 고순흠은 1893년 1월 14일 정통 유학 가문에서 태어났다.[1] 향리에

1) “고순흠이 작성한 이력서”와 「무정부주의자가 된 동기」에 의하면, 아버

서 습자와 한문을 익히다가 1907년 7월에 제주의신학교 보통과에 입학하였다. 1910년 4월 제주공립농업학교에 편입하여 1911년 3월에 졸업한 뒤, 1912년에 서울로 유학을 갔다. 1914년 3월에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7월에 대동청년당[2]에 가입한 뒤 귀향하였다.(「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1)」, 168~169·172~173쪽) 이후 제주도에서 자주독립을 위하여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경술국치 직후 조천에서 송산 김명식, 매원 홍두표와 같이 송죽매학원을 창설한 적이 있던 고순흠은 1915년 1월 사립 조천보통학교(朝天普通學校)를 창설하여 제주도 주민들의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한편, 조천청년회, 조천신용조합, 제주청년수양회, 제주경제조정회, 공진상회共進商會 등 여러 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지도하였다.[3]

3·1운동 직후 상경한 고순흠은 신백우가 1919년 3·1운동 직후 대동청년단을 중심으로 대한독립단(단장 신채호, 부단장 박중화)을 결성하자 거기에 참가하여 비서국장으로 활동하였다.[4] 대한독립단은

지 능봉 고성겸은 성균관교수로 行弘文館直試官이었으며, 고순흠은 5세에 유림태자후보가 되었다.

2) 김찬흡은 고순흠이 대한독립단에 가입한 것으로 서술하였으나, 이는 대동청년당의 잘못으로 보인다. 대한독립단(단장 신채호, 부단장 박중화, 비서국장 고순흠)은 1919년 3·1운동 직후 대동청년단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대동청년단(당)은 1907년에 서울에서 조직되었으나, 일제강점 이후 별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단원이 흩어지고 말았다. 신백우가 동 단체 재건을 계획하고 1912년 만주 화이런현(懷仁縣)에서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단재가 입단하여 신백우의 추대로 단장에 선임되었다.(毗夫申伯雨先生紀念事業會 편, 1973, 66~67쪽) 권대웅에 의하면, 대동청년단은 1909년 10월경 南亨佑(단장), 安熙濟(2대 단장), 徐相日, 朴洸 등 청소년 80여 명이 조직한 비밀결사로서, 1919년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의열단의 테러時 국내 연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권대웅, 2008, 136~138·167~168쪽 참조)

3) <고순흠후원회 발기문> ; 瀛洲硏墨會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고순흠 작품전시회 안내장(「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14)」, 177쪽에서 재인용) ; "고순흠이 작성한 이력서" 등을 종합

4) 毗夫申伯雨先生紀念事業會 편, 1973, 113쪽 ; 「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2)」, 159쪽 등을 종합. 瀛洲硏墨會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고

상해임시정부의 연통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상해임시정부에서는 임정 헌법을 기초하기 위하여 국내안(國內案)을 작성하여 송부할 것을 대한독립단에 의뢰하였다. 고순흠은 김명식, 장덕수 등과 함께 그 기초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일제의 관공리인 동포에게」, 「포고 제1호, 남녀 학생에게」, 「포고 제2호, 상업에 종사하는 동포에게」 등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운동 포고문과 격문을 전달받아 김규열(金圭烈), 황종화(黃鍾和), 이영봉(李永鳳), 최익무(崔翼武) 등과 함께 국내에 배포하였다.[5)]

대한독립단은 아나키즘적 색채가 강한 단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나키즘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였지만, 시대사상으로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국망 이후부터였다. 즉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할 사상으로서 반제국주의사상인 아나키즘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아나키즘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그 수용의 폭을 넓혀 나갔고, 1919년 3·1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폭발적인 힘이 드러나고 일제가 소위 '문화정치'를 시행하면서, 아나키즘은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다.

고순흠 역시 대한독립단 활동을 하면서 점차 아나키즘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순흠은 17세에 성선, 성악 양설을 다 부정하고, 성性은 본래 무색투명한 것이라고 자각하였으며, 그 뒤에 노자의 성소설(性素說)을 발견케 되어, 19세에 불혹이 되었다고 한다. 고순흠 자신은 "치평지도(治平之道)는 황제(黃帝) 무위이치(無爲而治)를 절대전법(絶對全法)으로 긍정케 된 것이요, 바쿠닌이나 크로포트킨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서구 아나키즘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유교와 노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아나키즘을 수용한 것임을 강조했다.(고순흠, 「무정부주의자가 된 동기」)

아나키즘을 수용한 고순흠은 노동자 조직화에 나섰다. 고순흠은

순흠 작품전시회 안내장에는 고순흠이 1920년에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으나(「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14)」, 177쪽에서 재인용), 이는 1919년의 잘못으로 보인다.

5) 『독립운동유공자 공훈록』 고순흠 항 ; 「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2)」, 160쪽 등을 종합

박중화·박이규 등과 함께 조선노동공제회 결성 준비에 들어갔다. 1920년 2월 7일에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노동문제연구회를 열어 1차 토의하였다. 토의한 결과 명칭을 조선노동공제회라 하기로 하고, 선언, 강령, 헌장 초안을 고순흠, 양제박 2인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이후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대동단결의 합법적 조직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노동자, 문학가,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 등을 각각 초청하여 파밀호텔에서 17회나 토의하였으며, 3월 16일에는 75명의 발기인으로 발기회를 조직하였다. 1920년 4월 3일의 발기총회에 이어, 4월 11일 기마경관 70명이 삼엄하게 포위한 가운데, 발기인 286명과 678명의 회원이 광무대에 회집하여 최초의 전국적 노동자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 결성식을 거행하였다.

결성 취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각국에서는 계급투쟁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기관으로는 회장(박중화), 총간사(박이규), 서무부(고순흠, 김사용, 윤덕병), 경리부(조용연 趙龍衍, 조태연 趙泰衍, 오환옥 吳煥玉), 교육부(신백우, 홍증식, 남정석 南廷晳), 편집부(유진희, 조성돈, 남상협), 소개부(이수영 李遂榮, 김기성 金基晟, 류양호 柳養浩), 구원부救援部(김약수, 차금봉, 김광진), 조사부(홍순녕 洪淳寧, 조정환 曺鼎煥, 홍창유 洪昌裕), 의사장(오상근), 의사議事(김명식, 장덕수, 양제박, 서세충, 김병로, 박한영, 이광종, 허헌, 박광희, 강세형, 정운해, 오긍선, 김기동, 남정팔) 등을 두었으며, 광주(최흥종 崔興宗), 대구(박기돈 朴基敦), 평양(강세형 姜世馨),[6] 함흥(허헌), 부산(안희제), 인천(김희조), 북청(미정), 원산(미정), 풍기(안기석) 등에 지회를 설치했다.[7]

---

6) 『공제』 창간호에는 정세윤(鄭世胤)이 조선노동공제회 평양지회장으로 소개되어 있다.(정세윤, 「창간을 축함」, 22쪽) 처음에는 강세형이 평양지회장이었다가 정세윤으로 바뀐 것인지, 고순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7) 「조선노동공제회 연혁 대략」, 166쪽 ; 『동아일보』 1920년 4월 6일·12일·5월 3일자 ; 「조선노동공제회 창업의 동기 및 전말」 ; 「조선노동공제회」 등을 종합. 고순흠은 1919년 7월 3일 태서관에서 독립단 단원, 비

조선노동공제회 결성은 대한독립단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회장 박중화를 비롯하여 간부들인 고순흠,[8] 김사용, 신백우, 이수영, 서세충 등은 대한독립단의 단원들이었으며, 부산지회장이었던 안희제 역시 대한독립단원이었다.[9]

조선노동공제회는 선언을 통해 계급을 정복민족과 피정복민족, 특권계급과 노예계급, 부자와 빈자(貧者), 귀자(貴者)와 천자(賤者)로 나누고 있으며, "각종 노예의 해방과 상호부조를 기함"을 강령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이는 조선노동공제회가 아나키즘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임원들 중 상당수가 아나키스트이거나 아나키즘적 경향을 지닌 인물이었던 점, 신채호와 고순흠이 단장과 비서국장으로 있던 대한독립단이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에 깊숙이 관계하였던 점 등은 상당수의 아나키스트들이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에 깊게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노동공제회가 아나키즘의 영향 아래 결성되었음을 말해 준다.

고순흠은 조선노동공제회 간사로 있으면서 조직·선전활동을 전개했다. 1920년 8월 13일 청우구락부(북청 소재)가 개최한 특별강연회에 조선노동공제회 회장이었던 박중화와 함께 강사로 초청되어(『동아일보』 1920년 8월 21일자) 강연을 하였다.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아나키즘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그리고 1921년[10]에는 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하여 조선공제소비조합을 설립하였다.[11]

단원 할 것 없이 73명이 회합하여 1차 협의하였고, 1920년 3월 15일에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된 것으로 회고하였으나 취하지 않는다.

8) 고순흠은 1920년 8월 13일 당시 조선노동공제회 내무간사였으며(『동아일보』 1920년 8월 21일자), 1921년 3월 제3회 정기총회에서도 간사로 선출되었다(『매일신보』 1921년 3월 15일자).

9) "고순흠이 제출한 자료" ; 「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2)」, 160쪽 등을 종합

10) 고순흠은 조선공제소비조합 설치 1년 후에 가가와도요히코賀川豊彦의 일본 소비조합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회고하였는데, 가가와도요히코는 스기야마 모토지로杉山元治郎와 함께 1922년에 일본농민조합 결성하였다.

이외에도 돈이 없어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조선통신중학관을 개설하여 학감으로 취임한 뒤, 『조선통신중학강의록』을 발행하였다.(“고순흠이 작성한 이력서”) 『조선통신중학강의록』은 매월 1일과 15일 두 번에 걸쳐 발행되었는데, 현재 18호(1922. 11. 23)가 전해지고 있다. 편집발행겸인쇄인은 고순흠이며, 발행소는 경성부 정동 1번지의 8 조선통신중학관이다. 강의록에 수록된 교과목은 수신, 국어, 한문, 영어, 동양역사, 일본지리, 세계지리, 산술, 생리(生理), 동물, 식물, 물리, 화학, 과학 등이다.(「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2)」, 167쪽)

고순흠은 조선노동공제회에서 활동하면서도 수시로 제주도를 왕래하면서 아나키즘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일제 재벌 간상奸商의 착취와 노예망에서 해업(海業)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1920년 4월[12]에 제주해녀어업조합을 창립하였다.(<고순흠후원회 발기문>)

제주도 해녀들은 해상 풍파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담한 생활을 수중에 맡기면서 해조류를 채취하지만, 객주와 거간꾼의 농단으로 수입이 거의 없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제주도의 유지들이 나섰다. 1918년 1월에 수산조합을 조직하여 해녀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려 하였지만,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1919년 10월 무렵에 이르러 김태호 외에 유지 인사 여러 사람이 다시 해녀조합이라는 것을 조직하여, 해녀가 생산한 물건을 공동으로 팔게 하며 중개도 하여주고 돈도 융통해주고자 하였다. 전라남도 당국과 설립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해녀조합과 부산의 해조(海藻)주식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해조주식회사가 해녀조합에서 공동판매할 해물을 전부 자기네 회사에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에서

11) <고순흠후원회 발기문> ; 고순흠, 「조선노동공제회 창업의 동기 및 전말」 등을 종합

12) 고순흠은 1916년 5월에 제주해녀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회고하였으나(“고순흠이 작성한 이력서”), 기억상의 혼란인 것으로 보인다.

항의가 빗발쳤고, 1920년 4월 28일 경남도청 지사실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해녀조합측의 주장이 전부 통과되었다. 즉 해녀가 채취한 해물은 4할인으로 조선해조주식회사에 팔며, 해녀는 조선해조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어 이익의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제주해녀어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다.[13] 제주해녀어업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고순흠의 활동상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순흠은 제주도에서도 선전활동을 펼쳤다. 제주흥학회가 1921년 8월 12일 오후 4시 공립제주보통학교에서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남녀 700여 명이 참가한 이 강연회에서 고순흠은 "우리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여 청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동아일보』 1921년 8월 21일자)

1922년 7월 조선노동공제회 내 공산주의자와의 충돌로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이후에는 아예 제주도로 내려가서 선전·조직활동에 종사하였다. 1923년 12월 6일 제주도에서 김근시 외 17인의 발기로 노동회가 창립되었다. 회장은 김근시, 부회장은 기업인 최원순이었으며, 이사는 김태호 외 6명, 감사는 문재창 외 2인이었다. '노동자의 지식 기능의 진보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노동자의 교육 시설 확보, 직업 소개, 위생시설 확보, 환난 구제, 저축 장려, 회원간 쟁의 중재, 일반노동에 관한 조사·연구, 회보 또는 잡지 발간 등의 사업을 벌였다.(『동아일보』 1923년 12월 17일자) 고순흠과 함께 제주해녀어업조합 결성을 주도하였던 김태호가 이사였던 것으로 보아, 노동회 결성에도 고순흠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고병희도 제주도에서 아나키즘을 선도적으로 수용한 인물 중의 한 명이다. 그는 1900년 제주도 삼도동에서 출생하였으며, 1920년 3월

13)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5월 5일·1921년 3월 19일·1924년 4월 28일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제주해녀어업조합 항에는 제주해녀어업조합이 1920년 4월 16일에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22년 여름경 도쿄 정칙(正則)영어학교에 입학하였다. 시외 모토츠카(下戶塚) 소재 장백료(長白寮)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인 고학생에 의해 조직된 형설회 간부 이준업의 소개로 박렬과 교류하였다. 이를 계기로 박렬과 김약수 등에 의해 조직된 흑도회에 가입하고, 아나키즘 연구에 종사하였다. 그후 흑도회가 박렬 일파의 아나키스트계와 김약수 일파의 공산주의계의 갈등으로 분열되자, 박렬 일파가 새로이 조직한 흑우회에 가입하여 아나키즘을 계속 연구하였다. 그러던 중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고, 한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자행되자 그를 피해 귀향하였다.(“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임상국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이후 제주도에서 아나키즘을 연구·선전하는 활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순흠과 고병희의 귀향 활동으로 제주도에서 아나키즘 수용이 확산되어 갔다. 하지만 1925년 무렵에 제주도에 아나키스트가 65명이나 있었다는[14] 사실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 이들의 아나키즘 선전활동은 제주공립농업학교 선후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15]

고순흠은 일본에서도 제주도 출신들을 중심으로 아나키즘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고영희, 강기찬, 김시숙 등은 신진회를 중심으로 반민족단체 상애회 및 조선인협회 소제(掃除)와 자아성(自我聲), 민성보(民聲報), 조선민보(朝鮮民報) 등 각종 운동을 고순흠과 같이 하였는데,[16] 이 때 아나키즘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14) 고순흠이 1965년 가을에 쓴 조대수 비문에 의하면, 고순흠이 1925년 가을에 일본에서 제주도로 갔을 때 제주도에는 크로포트킨 사상 신봉자가 65명이나 있었다.(“고순흠이 제출한 자료”)

15) 조대수와 고병희는 제주공립농업학교 동기동창이었다.(「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 4」, 227쪽)

16) “고순흠이 제출한 자료”. 이 자료에 의하면, 신진회를 중심으로 고순흠과 함께 활동한 사람은 최선명, 金突破, 孫無, 金秉勳, 高民友, 金彰煥, 金宗鎬, 朴榮徽, 金時均, 金時星, 韓碩一, 韓明淑, 尹龍錫, 李允熙, 金演秀, 金時淑, 韓錫順, 高永禧, 高永才, 康箕贊, 全昌善 등이다.

Ⅲ. 아나키즘의 사상적 내용

1. 제3의 사상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이 아나키즘을 논한 글은 거의 없다. 그들의 활동상에서 드러나는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적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일제강점기 반제국주의 사고체계로서 한국인들에게 수용된 아나키즘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에 반대하면서 제3의 사상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해왔다. 제주도 아나키스트들도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에 반대하였다.[17] 고순흠은 "현사회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자본주의, 침략주의의 탕란(蕩亂)에 하방하국(何邦何國)을 물론하고 전 세계 인류를 통하여" 비참한 생활을 하는 자는 수억의 무산 대중이라면서, "현대 물질문명의 조성품인 모든 사회조직과 경제제도가 불합리 불공평함을 직각(直覺)한다"고 하여,[18]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불합리성과 불공평성을 비판하였다. 고순흠과 양제박이 기초한 조선노동공제회의 선언에도 반제국주의적 태도가 녹아 있다. 즉 선언에서는 "서양 문명은 야수시대의 생존수단인 폭력 경쟁의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을 정의화(正義化)한 정복주의로부터 발족이 되"었다면서, "서양식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조선노동공제회") 이는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을 인류사회의 운영원리로 규정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던 사회진화론을 부정한 것이고,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비판한 것이다. 나아가 "민족적 계급적으로 해방이 될 때까지는 항상 임전의 태세로써 생활할 것을 각오"한다고 하여("조선노동공제회"), 제국주의를 타파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조선노동공제회의 강령[19]에

17)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이 민족주의를 비판한 글이나 활동은 잘 보이지 않는다.
18) 고순흠, 「청년운동을 促함」. 이 글은 조선노동청년당의 선언으로 작성되었던 것을 제목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
19) 조선노동공제회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조선노동공제회")

서도 인권의 자유평등과 민족적 차별 철폐를 기하고, 식민지 교육을 지양하고 대중문화 발전을 기한다고 하여(“조선노동공제회”), 반제국주의적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은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선 확실하게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1920년대 초 노동자·농민 대중운동이 성장하면서 공산주의가 점차 사회주의계를 주도해가는 가운데, 조선노동공제회 역시 공산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움직였다. 고순흠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백우 등이 재상하이 고려공산당과 연락하여 다수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비난하면서, 신백우 등을 조선노동공제회에서 축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고순흠의 시도는 실패하였고, 이에 고순흠은 조선노동공제회를 탈퇴한 뒤, 1922년 7월 11일 윤덕병과 이수영을 칼로 찌르고 조선노동공제회 간판과 서류를 불태우는(『동아일보』 1922년 7월 13일자) 등의 파괴적 행동을 감행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고순흠은 조선노동공제회 내에 “점차 볼셰비키가 침투케 되자 고질적인 사대주의자가 발생이 되고, 공산당 선전비 쟁취에 민족적 추태가 노골화케 되므로, 창립 책임감에 분노를 금치 못하여 부득이 파괴를 감행”하였다고 해명하였다.(고순흠, 「조선노동공제회 창업의 동기 및 전말」) 이 사건으로 고순흠은 체포되어 2주간 구금되었다.[20]

나아가 고순흠은 공산주의자들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였다. 1948년[21] 12월 23일 조대수(1904. 9. 11, 귀덕리 생)가 역민분자

- 인권의 자유평등과 민족적 차별 철폐를 기함
- 식민지 교육 지양과 대중문화의 발전을 기함
- 노동자의 기술 양성과 직업소개를 기함
- 노동보험 및 쟁의권 획득을 기함
- 각종 노예의 해방과 상호부조를 기함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순흠 항(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1) 비문에는 1947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비문 앞 부분에는 4·3항쟁 당시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회의원선거위원회가 1948년 3월 22일 선임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후보위원에 조대수가 포함되어(『조선일보』 1948년 03월 23일자 ; 『경향신문』 1948년 03월 23일자) 있

(친일부역자-인용자)의 모략으로 국군에 의해 살해·암장 당하자, 고순흠은 칠언율시로 된 만시를 지어 제주도에 있던 유족인 이원랑(李元娘)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2]

추억 조대수군
一念馳鄕安與危려니 使君先作九天悲아!
賭生虎穴能相約이나 再會人間不可期로다
聖戰凱旋[23]將有日이라 孤魂雪怨豈無時아!
願爲地下亦忠鬼하여 掃蕩東西賣國兒하라

고순흠은 위에서 "원하건대 지하에서도 충귀(忠鬼)가 되어 동서매국아(東西賣國兒)를 소탕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동서매국아(東西賣國兒)란 일본제국주의와 친일 매국노, 서양의 유물론에 물든 공산주의자를 지칭한다.

그리고 "조대수 비문"에서 한번 더 공산주의자를 친일 매국노와 함께 처단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였다. 고순흠은 "조대수 비문"에서 "噫라 在 於人格本位之純正民族獨立國家運動者하얀 恒有兩面之敵하니 前有唯物爲主之共匪요 後有附日逆民之族屬이라" 하였는데, 이는 인격 본위의 순정 독립운동자에게는 유물론자인 공산주의자와 부일 역민분자라는 두 적이 항시 전후에 있다는 것이다.

고병희도 "제주도의 경우는 여러모로 보아 공산주의보다는 아나키즘 운동이 좋다"라고 말하면서("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임상국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반공산주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의 반공산주의적 입장은 실제 활동과정에서도 표출되었다. 1928년 4월 오사카 천황사 공회당에서 제주도-오사카 항로를 경영하던 니기기선(尼崎汽船,) 조선우선(朝鮮郵船) 양 기선회사가

는 것으로 보아, 1947년은 1948년의 오기로 보인다. 『독립유공자 공훈록』과 4·3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사망년도가 1948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22) "조대수 비문" ; 「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6)」, 230~231쪽 등을 종합

23) 김찬흡은 '歌'로 기록하였다.

폭리를 취하는 것에 항의하여 제주도민대회가 개최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염인호, 1993: 300) 이 대회는 배삯 인하와 승객에 대한 대우 개선을 결의하고, 기선회사측과 교섭하였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은 "일시적일지라도 그 운동(제주도-오사카 간 재래의 항로에 대한 비난의 운동-인용자) 자체가 민중적화(民衆的化)케 된 것은 즉 일반의 흉중(胸中)에 횡일(橫溢)하는 불평과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때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도리어 피 토할 인욕(忍辱)의 체험만 얻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도시(都是) 당시 우리에게 적수공권으로 무슨 현실적 준비 적극적 대항책이 없었던 때문"이라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무준비성을 비판한 뒤, "여기에 우리는 한 번 안목을 바꾸어 대국(大局)을 관찰하고 민족적 지방적 공동경제의 이해를 총산(總算)하여 개체에서 전체로, 소극에서 적극으로 운동을 진출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아나키즘적 입장에서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기업동맹 기선부의 유인물")

1931년 1월 16일 오후 4시경에는 일본 오사카 축항부두에서 한국인 아나키스트들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즉 제주도-오사카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아나키스트 경영의 기업동맹 기선부와 공산주의자 경영의 동아통항조합 관계자들이 난투를 벌인 것이다. 사건은 기업동맹 기선부가 오사카 시내의 한국인 동포 거주 지대와 축항 부두에 "동아조합은 사기단이다"라는 제목의 전단을 살포하고, 16일 아침에 동아통항조합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운 데서 발단되었다.

동아통항조합이 1930년 11월부터 제주도-오사카 정기항로에 교룡환(蛟龍丸)을 취항시키자, 녹아도기선(鹿兒島汽船) 순길환(順吉丸)(제주도-오사카 정기항로에 취항)의 승객 취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기업동맹 기선부는 1931년 1월 16일 동아통항조합을 비난하고 나섰다. 1930년 4월 동아통항조합 결성 당시부터 기업동맹 기선부는 동아통항조합과 매사에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 날에는 물리적 충돌로까지 발전하였다. 기업동맹 기선부의 비난에 항의하여, 동아통항조합 간부 김달준과 문창래(41) 외 29명이 기업동맹 사무소를 찾아가

사죄를 요구하였지만, 기업동맹 기선부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동아통항조합 측은 기업동맹 측의 불법을 따지는 연설을 시작하였고, 기업동맹측도 20명 정도가 대항하여 서로 격론을 펼쳤다. 쌍방 간에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구경꾼 500여 명까지 합세하여 부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자는 다행히 없었지만, 김달준·문창래 등 32명이 검속되었다.[24]

2. 사회구상과 방법론

1) 아나코코뮤니즘

한국인들은 1910년 국권상실 이후 사회진화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나키즘을 수용하였다. 이 때 수용된 아나키즘의 주요 내용은 사회진화론의 생존경쟁론을 극복할 수 있는 상호부조론이었다. 상호부조론이 아나코코뮤니즘의 주요 이론인 까닭에 한국인들이 수용한 아나키즘은 아나코코뮤니즘이 주류였다 할 수 있다. 아나코코뮤니즘은 크로포트킨에 의해 완성된 사상체계로서, 인류사회는 인간의 상호부조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 생산재와 소비재 등 모든 재화를 사회화하고, 모든 생산을 인간의 욕망에 기초하여 재편하며, '각진소능 각취소수(各盡所能 各取所需,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 즉 욕망에 따라 분배할 것을 제창하였다.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이 수용한 아나키즘도 아나코코뮤니즘이 주를 이루었다. 1925년 무렵에 크로포트킨 사상 신봉자가 65명이나 될 정도였다.[25] 하지만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이 수용한 아나코코뮤니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편린만 볼 수 있을 뿐이다.

---

24) 『大阪每日記事』 1931년 1월 17일자 조간 ; 『大阪朝日新聞』 1930년 10월 17일·1931년 1월 17일자 조간 등을 종합(塚崎昌之, 2010: 72~75에서 재인용)

25) 주) 14 참조

고순흠과 양제박이 기초한 조선노동공제회의 선언은 “만일 우리 인류가 진정한 평화세계와 복지사회를 동경하고 원구(願求)한다면 정복 민족과 피정복 민족이 없는 세계, 특권 계급과 노예 계급이 없는 사회-그것이다”라고 하여, 계급이 없는, 그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지배나 억압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선언했다. 즉 약소 민족은 강대 민족으로부터, 천자(賤者)는 귀자(貴者)로부터, 빈자(貧者)는 부자로부터 각각 해방되어야 진정한 인류사회의 문명이 도래할 것이며, 모든 인간이 자유와 평화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노예의 해방과 상호부조를 기함”을 강령 중의 하나로 채택하는(“조선노동공제회”) 등 아나코코뮤니스트 사회 건설을 지향하였다.

2) 아나코생디칼리슴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은 주로 아나코코뮤니즘을 수용하였으나, 아나코생디칼리슴 또한 수용하였다. 아나코생디칼리슴은 1920년대 초 국내와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했지만,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이다. 일본에서는 1927년 9월 공산주의와 결별한 조선동흥노동동맹이 아나코생디칼리슴에 입각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의 영향하에서 국내에서도 아나코생디칼리슴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7년 10월 이홍근과 최갑용 등의 귀국을 계기로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국내 아나코생디칼리스트들은 노동자 조직화 활동과 파업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평양양화직공조합과 평양목공조합에 작업부를 설치하고 평양공제생산조합 고무공업부와 평화고무공장을 설립하는 등 생산조합을 결성해 나갔다. 국내 아나코생디칼리스트들은 모든 생산수단을 생산조합 공유로 하는 등 생산조합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설정하여 생산조합을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제주도에도 아나코코뮤니즘과 함께 아나코생디칼리슴이 유입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운동은 본토와는 달리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제주도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제주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전통적으로 지주로 성장하는 사람이 없었고,[26] 이에 지주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화는 있을 수 없었다. 지하자원이 없는 제주도는 광업과 제조업이 성장하기는 어려웠으며, 교통운수업이 산업계를 선도하였다. 일제는 1912년부터 제1기 도로공사를 시작하여 1913년에 일주도로를 완성하였으며, 합방 직후 조선우선에 제주도 일주 항로(목포 기점 2척, 부산 기점 2척)를 맡겨 매월 8회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922년에는 제주도-부산간, 1923년에는 제주도-오사카간의 정기항로가 일본인 민간인에 의해 개설되었다.[27]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제주도의 주요 기업 중 제조업은 극히 적고 절반 이상이 운수업이다.

제주도의 주요 기업

회사명	설립년도	공칭자본금	불입자본금	대표자
제주상선 주식회사	1922. 8	150,000	127,000	김근기(시?-인용자)
제주운송 합자회사	1924. 5	10,000	10,000	이윤희
제주면업 주식회사	1924. 10	200,000	50,000	김근기(시?-인용자)
제주전기회사	1925. 3	100,000	205,000	小倉武之助
제주통운 주식회사	1925. 6	6,000	6,000	최윤순
제주남부운수 주식회사	1927. 2	7,000	7,000	
제주주조 주식회사	1928. 4	40,000	10,000	衛藤伊三郎
조선沃度 주식회사	1928. 3	100,000	100,000	濱野佐一郎
제주순환궤도 주식회사	1928. 9	500,000		山本政敏

출전 : 梁川覺太郎, 1931, 『全羅南道事情誌』, 全羅南道事情誌刊行會, 1024~1026쪽(염인호, 1993, 297쪽에서 재인용)

26) 梁川覺太郎, 1931, 『全羅南道事情誌』, 全羅南道事情誌刊行會, 996쪽(염인호, 1993: 296에서 재인용)

27) 濟州島廳 編, 1924, 『未開の寶庫-濟州島』, 24쪽(염인호, 1993: 297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일본 자본이나 육지 자본의 침탈에 대항해 나갔다. 이러한 흐름은 아나코생디칼리슴이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하였다. 아나코생디칼리슴은 모든 재화를 생디카, 즉 생산자단체의 연합에 귀속시키고, 노동자가 생산을 지배하고 관리할 것을 주장하며, 도시생디카를 혁명의 주체, 신사회 형성의 주체로 규정한다.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은 아나코생디칼리슴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소생산자조합 내지 소비조합 운동과 결합하고자 하였다. 제주도에는 1920년에 이미 소생산자단체인 제주해녀어업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제주해녀어업조합 결성에는 고순흠이 관계하였다. 1921년에는 제주도 성산포를 중심으로 영주(瀛洲)소비조합이 결성되었다. 영주소비조합은 개인 기업이 아니라 대중들로 하여금 1인당 10원씩 2회에 불입하도록 하여 자본금 4,000원을 만들어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지만,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28] 영주소비조합 결성에도 1921년 조선공제소비조합 설립에 참여했던 고순흠이 관계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1926년 이후 강기찬과 고영희 등이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면서[29] 제주도에 소비조합을 다시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이들보다 먼저 귀국한 고병희는 아나키즘 선전작업을 모색하던 중 1927년 4월 9일 조대수, 강기찬, 김형수, 고영희 등과 함께 비밀결사 문고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1927년 10월에 소비조합을 결성하였으며(『독립운동자 공훈록』 고병희 항), 1929년 5월 5일에는 우리계라는 조합을 결성하였다.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이 생산자단체가 아닌 소비조합에 주목한 것은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제주도에서는 소비조합을 통해 생산기관

28) 梁川覺太郎, 1931, 『全羅南道事情誌』, 全羅南道事情誌刊行會, 996쪽(염인호, 1993: 296에서 재인용)

29) 고순흠의 회고에 의하면 강기찬과 고영희는 신진회에서 고순흠과 함께 활동했다.(주)16 참조) 따라서 강기찬과 고영희의 귀국일은 신진회의 결성일인 1926년 1월 16일(『自我聲』 창간호)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 교통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고병희·조대수 등은 현 사회조직을 붕괴시키고 권력지배 관계가 없고 노자 계급도 없는 자유평등의 신사회를 실현 즉 아나키스트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자유인의 결합에 의한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그 지방의 생산기관과 교통기관을 장악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공산주의 경제를 영위하고, 나아가 점차 범위를 넓혀 촌리연합, 면연합, 군연합, 도연합, 총연합을 결성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29년 5월 5일 우리계라는 조합을 결성했다.(“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임상국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제주도에서는 노동조합과 같은 생산자단체를 생산 지배관리 기관으로 설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에 고병희 등 우리계 관계자들은 소비조합이 비록 생산자단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산자단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비조합 결성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방법론은 아나코생디칼리슴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출신 아나키스트들이 소비조합 결성에서 나아가, 교통기관 장악을 시도하기 위하여 결성한 것이 기업동맹 기선부이다. 1928년 12월 10일에 가맹원 16명이 300원을 출자해서 결성된(塚崎昌之, 2010, 78쪽) 기업동맹 기선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배로 가장 싸게 조선 본토(일본-인용자) 간을 오갈 것이다”라는 취지하에 북해우선(北海郵船)의 제2 북해환(北海丸)을 전세로 빌려 1929년 1월 2일 오사카항에서 처녀항해를 하였다.[30]

기업동맹 기선부는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오사카(大阪)-제주도 간 독립항로는 물론이요, 장래 전 조선 항로를 경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금후의 경영은 당연히 제주도민 전체의 직영에로 돌려보내게 되오니, 여러분은 신속히 공영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인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기업동맹이 “직

30)『大阪每日新聞』1928년 12월 16일자(塚崎昌之, 2010: 70에서 재인용)

영하는 동안의 이해 처분도 역시 제주도민 전체의 본위로 행(行)"할 것이라고 공포하였다. 즉 "승선자의 동리(洞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인원수의 비례를 따라 제주도 13면 167개 리의 지방산업과 교육자금의 재원을 삼기 위하여 각리各里 리유재산(里有財産)으로 편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공동재단을 조직하여 독립 항로의 영구한 유지책과 흥산장학(興産奬學)의 시설에 공헌하고 순공영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기업동맹 기선부의 유인물") 이는 기업동맹 기선부가 추진한 자주운항운동이 사유재산제나 국유제가 아니라, 사회공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주관리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기업동맹 기선부는 자주관리체제에 입각해서 제주도-오사카 항로를 경영하고, 나아가 제주도의 전 산업과 전국의 항로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기업동맹이라는 명칭도 이를 염두에 두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동맹 기선부는 고순흠을 중심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결성되었지만, 제주도 아나키스트들도 상당수가 여기에 관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순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우리계 관계자들은 기업동맹 기선부의 제주도 내 조직에 깊게 관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계 관계자들은 소비조합을 통하여 교통기관을 장악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기업동맹 기선부 제주도내 조직을 결성하는 데 관계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매월 3원씩 납부했던 조합비는 그 자금으로 축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Ⅳ. 아나키스트운동 전개

1. 우리계 결성과 활동

1920년대 초부터 제주도에 아나키즘이 유입되고, 1925년경에는 아나키스트가 65명에 이를 정도로 아나키즘이 확산되었지만, 아나키

스트들의 활동을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아나키즘 수용의 선도자 고순흠은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1923년에 귀향했지만, 1924년에 다시 도일하였다. 고병희 역시 1923년에 귀국하여 아나키즘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1922년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가서 흑도회와 흑우회에서 활동하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 대학살을 피해 귀국한 고병희는 "현재의 사회조직에 불만을 품고, 일체의 권력지배관계가 없는 자유평등의 무정부주의사회를 동경"하면서, 아나키스트 단체를 결성하여 아나키즘 연구선전과 확산을 통해 아나키스트 사회를 실현할 방도를 모색했다. 고병희의 활동은 1926년 이후 강기찬과 고영희 등이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동지 규합에 나섰다. 1927년 4월 2일 제주공립농업학교 동기동창인 조대수를 그의 직장인 조선식산은행 제주지점으로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히고, 아나키스트 단체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 그의 동의를 받았다. 이들은 강기찬과 김형수에게 모임에 함께 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4월 9일 밤 김형수 집에서 1차 회합을 가졌다. 이들은 고병희의 제안에 따라 각자 월 30전의 회비를 거출하여 아나키즘에 관한 서적과 기타 간행물을 구입하고, 매월 3번째 토요일에 회합하여 공동연구를 하며, 서서히 동조자를 규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무명의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문고[31]라 명명했다. 고영희는 10월에 동 조직에 가입하였다. 이후 이들은 때때로 회합을 가지면서 아나키즘을 연구하였다.("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임상국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이들은 1927년 10월에 소비조합을 결성하여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펴는 등 실제 활동에 들어갔다.(『독립유공자 공훈록』 고병희·강기찬·조대수·김형수 항) 그리고 고영희는 제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을

31) 이들이 단체의 이름을 '문고'라 칭한 것은 1892년 제네바에 있던 러시아 학생 일동이 결성한 아나키즘 선전 써클의 이름이 아나키스트문고였던 것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염인호, 1993: 295)

대상으로 하숙을 치면서 그들에게 아나키즘 선전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28년 2월 12일 고영희 집(제주시 일도동)에 하숙하던 제주공립농업학교 부태환(夫泰煥, 3학년),[32] 장길수(張吉壽, 2학년), 김상추(金商秋, 3학년), 진택주(秦宅周, 2학년) 등이 신문잡지사에 투고할 목적으로 <졸업하면서 동지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일본 천황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기자단의 투서함에 투입하였다.[33]

고병희와 조대수는 소비조합운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유인의 결합에 의한 소비조합을 조직하고, 소비조합을 통해 그 지방의 생산기관과 교통기관을 장악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공산주의 경제를 영위하고, 점차 범위를 확장시켜 촌리연합, 면연합, 군연합, 도연합, 총연합 등을 결성해나가기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조합을 조직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고영희, 강기찬, 김형수 등도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29년 5월 5일 조선식산은행 제주지점 숙직실에서 회합하여 국체 변혁과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우리계를 결성하였다. 우리계의 표면상의 목적은 우의돈목(友誼敦睦), 경조상문(慶弔相問), 생활향상이었다. 조합원은 매월 3원씩 3년간 출자할 것 등을 규약으로 정하였다.(“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임상국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이후 우리계에는 양계무 외 여러 명이 가입하였는데(“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임상국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경찰서를 제외하고는 도청(島廳), 은행, 금융조합, 학교 등 공무원과 각종 실업가 및 기타 유지·신사들이 제주도 환상(環狀) 12포구 별로 총망라

32) 부태환은 항일문 투고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1928년 3월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1931년 5월 강창보(姜昌輔)에 의해 조선공산당 제주야체이카가 조직되자, 그해 7월에 장종식(張鍾植)과 함께 당외분자로 가입하였다. 1932년 해녀들의 항일 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제주 야체이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체포되었다. 치안유지법 위반의 죄명으로 대구 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부태환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사망하였다.

33) 『중요 범죄 보고서(전라남도)』(제주도지편찬위원회·문화체육과 편, 1996: 543~544에서 재인용)

되었다.(“고순흠이 제출한 자료”)

우리계는 1929년 9월 각 동리(洞里)에 야학을 개설하여 항일민족의식과 아나키즘을 고취하는(『독립유공자 공훈록』 고병희·강기찬·조대수·김형수 항)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일본에 있던 고순흠이 추진하던 자주운항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자주운항운동은 이들이 추진하고 있던 소비조합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점, 이들과 고순흠과의 밀접한 관계 등이 이들이 자주운항에 참가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계가 거출하고 있던 월 3원씩의 회비는 자주운항운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들이 자주운항운동에 한참 주력하고 있을 때인 1930년 6월 고병희 등 우리계 관계자들 65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 중 15~16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고병희, 조대수, 김형수, 강기찬, 고영희, 임상옥 등 6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30년 12월 8일 광주지방법원은 고병희에게 징역 5년, 조대수와 고영희에게 징역 4년, 강기찬과 김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임상옥은 무죄로 방면하였다. 이에 고병희 등이 항소하였고, 1931년 7월 14일 대구지방복심법원에서는 고병희와 조대수에게 징역 3년, 고영희·강기찬·김형수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아나키스트 사회 실현의 운동자금 조달 방법으로 우리계라는 조합을 조직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언도하였다.[34]

2. 자주운항운동 전개

1929년 들어 우리계는 제주도-오사카 항로를 둘러싸고 자주운항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제주도-오사카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니기기

34) “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임상국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의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고순흠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선(尼崎汽船)과 조선우선(朝鮮郵船)의 횡포가 심하자, 우리계 관계자들은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의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기업동맹 기선부와 합작하여 제주도-오사카 항로 경영에 나섰다.

일제는 합방 직후 목포를 기점으로 제주도를 일주하는 배 2척, 부산을 기점으로 하여 제주도를 일주하는 배 2척을 매월 8회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조선우선회사(朝鮮郵船會社)에게 맡겼다. 1915년 4월에 제주도-부산 항로가 개설되면서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도항하는 자가 증가하였다. 그것은 부산-시모노세키(下關) 경유로 도일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塚崎昌之, 2010: 49) 거기다가 1922년 11월에 여행증명서 제도가 폐지되어 더욱더 도항자의 증대가 예상되었다.(塚崎昌之, 2010: 58) 이에 1923년에 제주도-오사카간의 정기항로가 제주도인과 일본 민간인에 의해 개설되었다.

제주도-오사카 간 정기항로는 1923년 2월에 개설되었는데,[35] 1923년 2월부터 6월에 걸쳐 제주도-오사카 항로에 배를 취항시킨 것은 제우사(濟友社, 2~6월),[36] 김병돈(2월 오사카-->제주도 1회 운항), 니기기선(尼崎汽船, 3~6월)[37] 등이다. 김병돈은 니기기선(尼

35) 大阪市社會部調査課 編, 1924『朝鮮人勞働者問題』, 345~346쪽(塚崎昌之, 2010: 54에서 재인용)

36) 塚崎昌之는 제우사가 제주상선주식회사일 것으로 추측한다.(塚崎昌之, 2010, 58쪽) 1922년 8월 10일에 자본금 15만 원으로 설립된 제주상선주식회사는 당초 "부산, 여수, 거문도와 제주 연안 각 항구와의 항해를 경영하고, 업무 발전에 따라 제주·목포 간의 항해도 경영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김근시 등 10명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상선주식회사는 머지 않아 제주도-오사카 간 항로에 취항한 오사카의 尼崎汽船과 업무제휴하는 방향으로 경영방침을 전환해갔다. 이후 제주상선은 사실상 尼崎汽船의 하청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藤永壯, 1999「植民地期·濟州島の實力養成運動團體とその人員構成」『大阪産業大學論集(社會科學篇)』, 75~76쪽(塚崎昌之, 2010: 57~58에서 재인용)]

37) 니기기선尼崎汽船은 1923년 3월에 제주도-오사카 항로에 배를 취항시켰다. 尼崎汽船이 1925년 5월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정大正 12년 3월 조선 제주도 항로 개시(오사카 출발 관문·부산·제주도 각 항구 경유 목포행)"이라고 적혀 있다.[「大正期在阪官公署諸企業沿革調査」『大

崎汽船)과 관계가 있던 인물이었고, 제우사는 1923년 6월경 니기기선(尼崎汽船)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니기기선(尼崎汽船)과 업무제휴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던 것으로 보인다.(塚崎昌之, 2010: 54~59)

제주도-오사카 간 정기항로가 개설되면서 제주도인의 도항은 급속히 늘어나 제주도-오사카간의 정기연락선은 황금노선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38] 이에 조선우선(朝鮮郵船)도 제주도-오사카 항로 경영에 뛰어들었다. 제주도-오사카 항로를 독점한 니기기선(尼崎汽船)과 조선우선은 운임을 높게 책정하였다. 이에 제주도기선합자회사가 각 단체의 후원을 받아 1926년 11월 1일부터 제주도-오사카 항로에 배를 취항시켰다.(塚崎昌之, 2010: 63) 제주도기선합자회사는 회사의 명칭, 한국 측의 신문에만 게재된 것 등으로 보아, 제주도 관계자가 경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塚崎昌之, 2010: 64~65)

제주도기선은 종래 10원 여의 운임을 5원으로 인하하여 니기기선(尼崎汽船), 조선우선 양 기선회사와 경쟁을 시작했다. 제주도기선이 출범할 당시에는 모든 기선회사가 운임을 3원으로 인하하였다. 제주도기선은 다시 1원 50전으로 인하했다.(『동아일보』 1926년 12월 9일자) 제주도기선은 1926년 11월 25일에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첫 운항한 이후, 12월 1일, 12월 16일에는 오사카항에서 제주도로 출항하였다.(塚崎昌之, 2010: 64) 하지만 니기기선(尼崎汽船), 조선우선 양 기선회사와의 무리한 경쟁은 수지악화를 가져왔다. 제주도기선은 1926년 말 조선우선에 선박대여를 교섭하였고, 1927년 1월 1일부터는 조선우선의 용선으로서 항해를 계속했다.[39]

이후 니기기선(尼崎汽船), 조선우선 양 기선회사의 횡포는 재개되

阪市史史料』 第19輯, 1986: 154(塚崎昌之, 2010, 52쪽에서 재인용)]

38) 니기기선(尼崎汽船)과 朝鮮郵船은 약 100만 원의 큰 수익을 올리는 등 다른 선박자본가와 브로커의 선망 대상이 되었다.[C·K생, 「동아통항조합의 연혁·지위·임무(1)」 『사회운동통신』(1933. 1. 31)(塚崎昌之, 2010: 40에서 재인용)]

39) 『京城日報』 1927년 1월 9일자 조간(塚崎昌之, 2010, 62~63쪽에서 재인용) ; 塚崎昌之, 2010: 64 등을 종합

었다. 그럼에도 제주도-오사카 항로의 이용자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도사(島司)를 회장으로 하는 제주공제조합 창설이다. 제주공제조합 설립에는 김근시와 제주상선이 큰 역할을 하였다. 1927년에 조직된 제주공제조합은 도항 알선에 나섰으며, 그 해 5월에 오사카에 출장소를 마련했다.[40] 제주공제조합 역시 제주도민들을 수탈하는 데 한 몫을 했다. 제주공제조합은 도항 증명을 빌미로 오사카로 가는 제주도 사람으로부터 제주경찰서 관내의 각 경찰관 주재소를 앞세워 강제적으로 한 명당 1원씩의 입회금을 걷어 입회시켰다. 한번 회원이 된 사람이라도 용건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재차 오사카로 도항할 경우 또 다시 공제조합에 1원씩 징수당했다.[41]

니기기선(尼崎汽船), 조선우선 양 기선회사의 폭리가 지속되자, 제주도민들은 1928년 4월 자유 도항과 배삯 인하를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두 선박회사는 "새가 아닌데 날아갈 것인가, 고기가 아닌데 헤엄쳐 갈 것인가"하고 조롱하며, 배삯 인하를 거절하였다. 이에 재오사카 제주도민들이 1928년 4월 오사카 천황사 공회당에서 다시 제주도민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배삯 3할 인하와 승객에 대한 대우 개선을 결의하고,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교섭케 하였지만, 이 역시 두 기선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42] 이 대회는 기선회사에 대한 결의만이 아니라 제주공제조합을 박멸할 것도 결의하였다.[43]

이에 오사카에 있던 제주도 출신 아나키스트들은 고순흠을 중심으로 기업동맹 기선부를 설립하고, 제주도 아나키스트들과 결합하여

40) 『大阪朝日新聞』 1928년 4월 15일자 조간·『大阪每日新聞』 1928년 5월 29일자 조간(塚崎昌之, 2010: 65~66에서 재인용). 이들 자료에는 제주공제회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제주공제조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41) 高権三, 1938, 『大阪と半島人』, 東光商会, 97~98쪽(이영춘·박홍갑·강인구 편, 2009에서 재인용)

42) 朴慶植, 1981, 『在日朝鮮人-私の青春』, 三一書房, 166쪽(염인호, 1993: 299~300에서 재인용)

43) 姜徹 編著, 1983, 『在日朝鮮人史年表』, 雄山閣, 56쪽(염인호, 1993: 300에서 재인용)

자주운항운동을 전개했다. 기업동맹 기선부는 1928년 12월 10일에 가맹원 16명이 300원을 출자해서 결성되었으며,[44] 사무소를 오사카시(大阪市) 기타구(北區) 나카노시마(中之島) 7 정목(丁目) 17번지 하야(河野)빌딩 내에 두었다. 기업동맹 기선부는 유인물을 통해 결성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기업동맹의 유인물”)

> 우리 형제가 예년(例年) 연말연시에 입도하는 한 행보치만 오사카(大阪) 축항 부두에서 선비를 수합하여 공동선표로 갈 작정을 한다면, 무려 2천 톤짜리 3, 4척가량은 용선(傭船)을 하고 갈 수 있으며, 두 행보치만 합한다면 금반 우리 배라도 한 척은 충분히 현금으로 사서 탈 수 있겠습니다.
>
> 그러면 1, 2, 3월 같은 달은 1개월 4회 왕복의 승객 선비(船費) 총액만 하여도, 현재 피아의 선박을 가릴 것 없이 제주도 직행선 같은 종류의 것은 전부를 똘똘 뭉쳐 소유하여 자기대로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대로 독립선로를 경영하여 다닌다면, 연중 1인당 평균 5, 6원의 선비로 다니다가도 선박 2, 3척만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설혹 10원의 선비로 통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반액가량은 자기네의 공동재산으로 늘 예금되어 남아갈 것이외다.
>
> 그런대 이렇게 이해가 크고 단순한 항로를 자영치 아니하여 남의 배로 통행을 하면서 1년에 백여만 원의 금전을 갖다 바치고 천대는 천대대로 받고 있으니,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도 우리의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애처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제주도 사람들이 오사카에서 제주도로 가는 1회 선임만 모아도 배를 전세내어 갈 수 있고, 2회치를 모으면 아예 배를 살 수도 있는데, 비싼 운임을 내면서 천대를 받으며 일본인의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제주도-오사카간 독립선로를 자영하고자 기업동맹 기선부를 설립한

44) 塚崎昌之, 2010: 78. 고순흠은 1924년 12월 대판(大阪)제주항해조합을 조직하여 제주도-오사카간 정기항로와 부산, 목포, 군산, 인천, 신의주의 부정기항로를 개척한 것으로 회고하였으나(“고순흠이 작성한 이력서”), 1924년은 1928년의 잘못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판(大阪)제주항해조합은 기업동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자료에도 제주항해조합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고순흠이 기업동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는 것이다.

이어서 “금춘이래(今春以來) 오사카(大阪) 제주간 재래의 항로에 대한 비난의 운동이 제창되자,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그 운동 자체가 민중적화(民衆的化)케 된 것은 즉 일반의 흉중에 횡일(橫溢)하는 불평과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도리어 피 토할 인욕(忍辱)의 체험만 얻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도시(都是) 당시의 우리에게 도수공권(徒手空拳)으로 무슨 현실적 준비 적극적 대항책이 없었던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우리는 한번 안목을 바꾸어 대국(大局)을 관찰하고 민족적 지방적 공동경제의 이해를 총산하여, 개체에서 전체로, 소극에서 적극으로 운동을 진출”시켜야 하고,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오사카(大阪)·제주도간 독립항로는 물론이요, 장래 전 조선 항로를 경영”할 목적으로, “금춘이래(今春以來) 전력을 사계(斯界)에 경주하고, 천신만고의 간난(艱難)을 거듭한 결과, 간신히 금일에야 오사카(大阪)－제주도간 독립항로의 경영을 솔선하여 실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제주도－오사카간 독립 항로 경영방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즉 “금후의 경영은 당연히 제주도민 전체의 직영에로 돌려보내게 되오니, 여러분은 신속히 공영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인계하여 가시기 바라는 바이외다. 그러므로 본 동맹에서 직영하는 동안의 이해 처분도 역시 제주도민 전체의 본위로 행(行)케 됩니다. 즉 승선자의 동리(洞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인원수의 비례를 따라 제주도 13면 167개 리의 지방산업과 교육자금의 재원을 삼기 위하여 각리各里 리유재산(里有財産)으로 편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공동재단을 조직하여 독립항로의 영구한 유지책과 흥산장학(興産奬學)의 시설에 공헌하고 순공영자금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공기(共器)가 출현하면 대중은 반드시 그것을 잘 운용하고 성장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항로의 운명도 첫째, 여러분의 민족적 각성 의식의 정도 여하에 달려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주도－오사카 간 독립항로 경영에 제주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동맹 기선부는 북해우선(北海郵船)으로부터 4,500원으로 제2 북해환(北海丸)을 전세로 빌려 1929년 1월 2일에 제주도-오사카간 항로에 첫 출항을 시켰는데,[45] 한 때 편도 12원으로 치솟았던 운임을 9원으로 책정하였다.[46] 한편, 기업동맹 기선부는 제주도 아나키스트들과 결합하여 제주도에 대리부를 설치하였다. 대리부는 총대리부-항만대리부-리대리부의 조직체계로 구성되었다. 총대리부는 제주도 일원에 대한 하객 취급의 전 책임을 인수하여 항만 리 각 대리부의 업무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기타 특정의 본사 사무를 대리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데, 경비는 일체 자부담(自負擔)으로 하되, 각 항만대리부 승객 전체 운임의 5분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그리고 대표이사 1명을 두되, 5명 이상 이사의 공동경영으로 하였다. 항만대리부는 3인 이상의 공동경영으로 하며, 기업동맹 기선부 본사를 대리하여 그 소속 구간에 대한 각 리 대리부의 하객 취급과 기타 지정의 업무를 집행하되, 각 리 대리부의 시설과 특히 선박 기타 하객(荷客) 취급에 필요한 설비를 배치할 책임을 졌다. 그리고 일체 경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① 자 소속 구간의 승객취급분의 일할 ② 타 소속 구간 승객취급분의 오분(타 오분은 승객 본 소속 리 대리부로 교부할 것) ③ 출하(出荷) 운임의 일할과 수하(受荷) 운임의 5분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리대리부는 일인 이상의 경영으로 하며, 하객 모집과 중개 사무 공동취급 등의 업무를 집행하며, 승객 1당 운임의 일할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기업동맹 기선부 대리부 규정”)

총대리부 설치에 이어 항만대리부 설치에도 나섰다. 1929년 1월 29일 고남하·김군보와 세화항대리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남하와 김군보가 기업동맹 기선부 본사에 제출한 “서약증서”에 의하면, 본사는 속력 약 10리의 1,000톤급 선박 1척 이상으로 제주도-오사카 간을 정기적으로 매월 4항회(航廻)하고, 제주도-오사카간 운임은 9원 균일로 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리대리부 경영자는 3항

45) 『大阪每日新聞』 1928년 12월 16일자(塚崎昌之, 2010: 70에서 재인용)
46) “서약증서”; 『大阪朝日新聞』 1930년 10월 17일자 조간(塚崎昌之, 2010: 72~73에서 재인용) 등을 종합

해 이후 신임금(信任金) 일금 200원을 본사에 적립해야 하며, 매 항해 평균 20명 이상의 승객을 확보해야 했다.

기업동맹 기선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배로 가장 싸게 조선 본토 간을 오갈 것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의욕차게 제주도-오사카간 독립 항로를 개설하였지만, 곧 자금 부족으로 난관에 처했다.[47] 이에 기업동맹 기선부는 1929년 5월 9일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증서”)

1.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는 순길환(順吉丸) 또는 다른 약 1,000톤급의 하객선(荷客船)으로 기업동맹 기선부가 경영하던 제주도-오사카간 항로를 계승할 것

2. 기업동맹 기선부는 제주도-오사카간 항로의 영업권과 설비를 있는 그대로 먼저 1개년을 한도로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에 제공할 것

3. 제주도-오사카간의 승객 운임은 대인 1명 9원, 소인 1명 4원 50전 균일로 할 것

4.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는 수익과 손실 일체를 감당하되, 기업동맹 기선부에 하객(荷客) 취급의 대리권을 전속(專屬)시키고, 보수로서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기업동맹 기선부에게 교부할 것

a. 승객 1명당 운임의 이할

b. 제주도에 속하는 발착 화물에 대하여서는 후일 쌍방 협의 하에 별도로 그것을 정함.

5. 기업동맹 기선부는 1년 통산(通算) 오사카 출범出帆 1일 정기승객은 왕복 500명, 8일과 18일 정기승객은 왕복 250명을 책임지고 확보할 것

47) 『大阪每日記事』 1929년 4월 17일자 조간 ; 『大阪每日新聞』 1928년 12월 16일자(이상 塚崎昌之, 2010: 68·70에서 재인용) 등을 종합. 『大阪每日記事』는 조선제주도기업조합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기업동맹 기선부의 잘못으로 보인다.

6. 선 내의 사무에 필요한 한국인 사무장 이하 한국인측의 인사 임면권은 기업동맹 기선부에 일임할 것
7. 전항 사용인의 급료는 기업동맹 기선부의 부담으로 하되, 녹아도우선주식회사에게 보조를 청구할 수 있음
9.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만 1개 년으로 함

순길환(順吉丸, 1,400톤)은 "이 배는 끝내는 우리 도민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선전하면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1929년 4월 16일 오후 6시에 이미 오사카에서 제주도로 처녀항해를 하였다.[48] 이에 니기기선(尼崎汽船)과 조선우선 두 회사는 3등실 10원 50전(평균)으로 대략 8년간 계속 유지해오던 선임을 터무니 없이 싼 가격으로 인하하였다. 즉 1일과 16일에 오사카를 출범하는 정기선에 한해서 오사카에서 모지(門司), 부산, 목포를 경유해서 제주도까지의 운임을 3원으로 하고 두 낮과 밤 동안에 3번씩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순길환도 종래의 9원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어려움을 참고 3원으로 보조를 맞추었다. 그러자 니기기선(尼崎汽船)에서는 운임을 3원으로 하는 이외에 수건과 비누를 주고 식사도 개선하여 손님 접대도 더욱 친절하게 하였다.[49] 그 결과 제주도까지는 3원이지만, 목포까지는 9원이어서, 목포로 가는 사람들이 종착지인 제주도로 가서 1원 50전으로 목포로 다시 돌아가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50]

기업동맹 기선부는 순길환을 운항하면서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아나키즘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고순흠은 순길환의 사무장을 하면서[51] 제주도민이 대부분인 승객을 대상으로 민족의식

48) 『大阪每日記事』 1929년 4월 17일자 조간 ; 『大阪朝日新聞』 1929년 9월 8일자 조간(이상은 塚崎昌之, 2010: 68·70에서 재인용) 등을 종합
49) 『大阪朝日新聞』 1929년 9월 8일자 조간(塚崎昌之, 2010: 70에서 재인용). 이 자료는 순길환이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주식회사와 제주상선회사의 제휴로 1929년 6월에 첫 출항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기업동맹 기선부와 1929년 4월의 잘못이다.
50) 『大阪朝日新聞』 1929년 9월 8일자 조간(塚崎昌之, 2010: 71에서 재인용)

을 고취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고준석에 의하면, 1930년 여름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가는 순길환에서 고순흠은 “태산을 끼고 북해를 넘어…”로 시작되는 연설을 했는데, 그 의미는 큰 산을 옆에 끼고 대해를 건널 수는 없지만, 한국 민족은 자각과 단결만 있으면 독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52] 그리고 최선명은 1930년 10월 3일 기업동맹 기선부의 기관지로 『조선민보』 창간호 약 600부를 발행하기도 하였다.[53]

고순흠을 비롯한 제주도 출신 아나키스트들이 자주운항운동을 전개하자, 공산주의자들도 여기에 끼어들었다. 1929년 4월에 김문준이 중심이 되어 제주도민유지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주통항조합준비회를 조직할 것을 가결하였으며, “우리들은 우리들의 배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사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제주도민들로 조합원 4,500명을 조직하여 출자금(1株 30전 조합비)을 모았다. 1930년 4월 22일 제주도 162개 마을 중 119개 마을의 가입을 받아서 동아통항조합을 결성하였다. 동아통항조합의 조합원은 약 1만 명이었으며, 제주도에 출장소를 두었다. 동아통항조합은 1930년 7월에 제주도-오사카 항로에 배를 취항시키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연기하였다. 1가구 5원 기금 기부활동을 다시 전개하여 6,000원을 융통한 뒤, 신호(神戶)선박회사로부터 교룡환(蛟龍丸, 1,007톤)[54]을 월 3,000원에 전세내어 11월 1일부터 제주도-오사카간 항로에 취항시켰다. 제주도-오사카간 운임은 6원 50전으로 책정하였다.[55]

---

51) 杉原達, 1998, 『越境する民』, 新幹社, 125쪽(塚崎昌之, 2010: 78에서 재인용)

52) 高峻石, 1977, 『越境 朝鮮人·私の記錄』, 社會評論社, 114~115쪽(塚崎昌之, 2010: 77~78에서 재인용)

53) 大阪府特別高等警察課 編, 1930, 『特高時報』 第2卷第11號(1930. 11)(塚崎昌之, 2010: 86에서 재인용)

54) 동아통항조합은 1931년 12월부터는 복목환(伏木丸)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塚崎昌之, 2010: 85)

55) 三木今二, 1934, 『司法硏究第17輯·內地に於ける朝鮮人とその犯罪に就て』; 『大阪朝日新聞』 1930년 10월 17일·1931년 1월 17일자 조간(이상 塚崎昌之, 2010: 72~75·82에서 재인용); 朴慶植, 1979, 『在日朝鮮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제주도-오사카간 항로의 배삯이 대폭 인하되었음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끼어들어 교룡환을 출항시키자,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자간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아나키스트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매사에 충돌하였으며, 물리적 충돌로까지 발전하였다. 자주운항운동을 대중운동과 결합시킨 공산주의자들에게 승객을 대거 빼앗기자, 아나키스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1931년 1월 16일 오후 4시경 동아통항조합 간부 김달준 외 여러 명이 기업동맹 기선부 사무소인 미나토구(港區) 산죠통(三條通) 4정목(丁目) 회조점(回漕店) 천만옥(天滿屋)을 찾아갔다. 기업동맹 기선부가 시내의 한국인 동포 거주 지대와 축항 부두에 "동아조합은 사기단이다"라는 제목의 전단을 살포하고, 배가 출발하는 16일 아침에 동아통항조합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운 것에 대하여 항의하러 간 것이다. 기업동맹 기선부측이 사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문창래(41) 외 30명은 오후 4시 반경 기업동맹 기선부 사무소 앞 길가에서 기업동맹 기선부측의 불법을 따지는 연설을 시작하였다. 이에 기업동맹 기선부측이 20명 정도가 대항하였고, 양측은 살기를 띠면서 격론을 펼쳤다. 구경꾼 500여 명까지 합세하여 부두 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축항(築港) 경찰관의 진압으로 부상자는 없었다. 항수상(港水上), 축항(築港) 두 경찰서는 문장래 외 15명과 김달준 외 5명을 각각 축항경찰서와 항수상경찰서로 검속하고, 군중을 해산시켰다.[56]

기업동맹 기선부는 경영실적이 호전되지 않자 조직을 개편하였다. 1931년 12월 협동조합주의를 기조로 한 민중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향상을 기대할 것을 강령으로 삼고, 종래의 가맹원 16명으로 출자액 각 300원으로 한 소수 조직을 각자 3원 출자의 대중적인 조직

人運動史 解放前』, 三一書房, 274쪽(염인호, 1993: 305에서 재인용) ; 塚崎昌之, 2010: 41·83~85 등을 종합

56) 『大阪每日記事』 1931년 1월 17일자 조간 ; 『大阪朝日新聞』 1931년 1월 17일자 조간(이상 塚崎昌之, 2010: 73~75에서 재인용) 등을 종합

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후 전단을 살포하는 등 선전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사업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57] 최선명은 1933년 5월에 로지테일 방식을 기조로 한 잡지 『협동조합운동』을 창간하면서, 세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결국 기업동맹 기선부는 1933년 말 동아통항조합과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塚崎昌之, 2010: 87)

3. 일본에서의 활동

일본 오사카에 한국인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1909년인데, 오사카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는 1914년 말 남자 212명, 여자 4명, 1915년 말 남자 397명, 여자 2명, 1916년 말 남자 749명, 여자 13명, 1917년 말 남자 2,030명, 여자 205명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塚崎昌之, 2010: 43·49~50)

1915년 4월 제주도-부산 항로가 개설되면서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도항하는 사람이 증가하였는데, 1917년 중반에 이르러서는 오사카의 한국인 절반 정도가 제주도 출신이었다.(塚崎昌之, 2010: 43·49) 1923년 2월에 제주도-오사카 간 항로가 개설되면서 도항자수는 급증하였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다수는 제주도민이었으며, 오사카 한국인 사회는 제주도의 연장이라 할 수 있었다. 제주도-오사카 항로 이용자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주도민의 절대 다수는 저임의 노동현장에서 일제의 간계에 의해 모멸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3)」, 189쪽) 고순흠을 비롯한 제주도 출신 아나키스트들은 오사카 제주도민 사회를 기반으로 아나키즘 조직선전활동을 전개했다.

57) 三木今二, 1934, 『司法硏究第17輯·內地に於ける朝鮮人とその犯罪に就て』(塚崎昌之, 2010: 81~82에서 재인용)

1923~1933년 제주도-오사카 항로 이용자수

연도	제주도--> 오사카	오사카--> 제주도	승객수	전년비	재류증감	취항사
1923	5,190	3,150	8,340		+2,040	尼崎汽船
1924	14,278	5,107	19,385	+11,045	+9,171	尼崎汽船 朝鮮郵船
1925	15,906	9,646	25,552	+6,167	+6,260	尼崎汽船 朝鮮郵船
1926	15,862	13,500	29,362	+3,810	+2,362	尼崎汽船 朝鮮郵船 濟州島汽船
1927	19,224	16,863	36,087	+6,725	2,361	尼崎汽船 朝鮮郵船
1928	16,762	14,703	31,465	−4,622	2,059	尼崎汽船 朝鮮郵船
1929	20,418	17,660	38,078	6,613	2,758	尼崎汽船 朝鮮郵船 기업동맹
1930	17,890	21,426	39,316	1,238	−3,536	尼崎汽船 朝鮮郵船 기업동맹
1931	18,992	17,685	36,607	−2,709	1,237	尼崎汽船 朝鮮郵船 기업동맹
1932	21,409	18,307	39,716	3,109	3,102	尼崎汽船 朝鮮郵船 기업동맹 동아통항조합
1933	29,208	18,062	47,270	7,554	11,146	尼崎汽船 朝鮮郵船 기업동맹 동아통항조합

* 1925년 10월 內地 도항 저지제도 실시
* 1928년 7월 지원유지(地元諭旨)제도 개시

자료 : 杉原達, 1998, 『越境する民』, 新幹社, 81쪽(塚崎昌之, 2010: 60·66에서 재인용)

오사카에는 제주도-오사카 항로 개설 전인 1922년 11월 1일에 이미 제주도의 젊은이들에 의해 서호리청년회 대판(大阪)지회가 결성되어[58] 제주도와 연락을 취하면서 청년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924년 3월 일본 오사카로 간 고순흠은 당시 오사카 한국인 유일 사상단체였던 남흥여명사에 기식하며, 최선명, 김태엽 등과 제휴하여 1924년 6월 2일에 조선인아나키스트연맹과 조선무산자사회연맹을 조직하였다.[59] 대판조선노동동맹회(大阪朝鮮勞動同盟會)를 통하여 조선인여공보호연맹회를 조직하고, 방적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의 대우 개선, 분쟁 등에 관여하는 등 제주도 출신 여공들의 권익 옹호에 힘썼다. 당시 오사카 한국인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이 제주도 출신이었다. 그리고 계(堺)조선자유노동연맹(1925), 대판大阪자유노동자연맹(1925), 신진회(1926. 1. 16), 부평사(浮萍社), 고려평민기업사 등의 창립에도 참여하여 제주도민의 사상계발에 노력하였다. 고영희(高永禧), 강기찬(康箕贊), 김시숙,[60] 최선명, 김태엽 등도 고순흠과 함께 신진회를 중심으로 반민족단체 상애회와 조선인협회 타도투쟁, 『자아성』·『民聲報』·『朝鮮民報』 발간 등 각종 운동을 같이 하였다.[61]

---

58) 大阪府 編, 「昭和8年度朝鮮人ニ關スル統計表」(塚崎昌之, 2010: 51에서 재인용)

59) 內務省警保局保安課 編, 「大正15年中ニ於ケル在留朝鮮人ノ狀況」(朴慶植 編, 1975: 210) ; 內務省警保局保安課 編, 「大正14年中ニ於ケル在留朝鮮人ノ狀況」(1925年 12月)(朴慶植 編, 1975: 161) ; 坪江仙二, 1966: 289 ;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4: 184·283~284 등을 종합

60) 김시숙은 1880년 제주도 조천 출생으로 결혼에 실패하고, 40세에 궐기하여 초학(初學)을 약수(略修)한 후, 조천에서 강평국, 이재량 등과 함께 부인들의 수양기관인 부인회를 조직하는 등 부인여명(婦人黎明)과 유년교육(幼年敎育)을 개척하였다. 이후 오사카로 도항하여 재일여공노동소비조합이란 단체를 조직하여 교포 근로 여성들의 복리(福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한 상호친목과 단결을 도모하였다. 54세 되던 1933년 7월 15일 오사카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하였다.["김시숙 비문"(1936. 7. 15, 고순흠)(「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2)」, 168~169쪽에서 재인용) ; 「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2)」, 168쪽 등을 종합]

Ⅴ.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전개된 아나키스트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가 지닌 지정학적 특징은 아나키즘이 널리 보급될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1920년대 초에 유입된 아나키즘은 많은 동조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아나키즘 수용은 고순흠, 고병희 등 서울이나 일본으로 유학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에서 아나키즘을 수용한 고순흠은 제주도를 왕래하면서 1920년에 제주해녀어업조합을 창립하여 해녀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강연회 등을 통하여 아나키즘을 선전하는 한편, '노동자의 지식 기능의 진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회 설립에도 관여하였다. 고병희는 일본 도쿄 정칙영어학교에 다니면서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흑도회와 흑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 때 귀국하여 제주도에서 아나키즘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1925년 무렵 제주도에는 아나키스트가 65명이나 되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이 수용한 아나키즘은 제3의 사상으로서 기능하였는데, 제주도 아나키스트들 역시 반제국주의와 반공산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반민족주의적 입장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제주도에서도 아나코생디칼리슴은 아나코코뮤니즘과 함께 아나키스트계의 주류를 형성하였지만, 제주도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운동은 생산자조합이 아닌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제주도에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생디카를 건설하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은 소비조합을 통하여 교통기관을 장악한 뒤, 자주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

61) 『자아성』 창간호 ; <고순흠후원회 발기문> ; "고순흠이 제출한 자료" ; 坪江仙二, 1966: 289 ;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4: 28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순흠 항 등을 종합

1926년 강기찬과 고영희 등이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면서 제주도에서 아나키스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을 만나 귀국한 고병희는 아나키스트 사회를 실현할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동지 규합에 나섰다. 1927년 4월 2일 조대수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히고, 강기찬과 김형수에게도 모임에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이들은 비밀결사 문고를 결성한 뒤, 때때로 회합을 가지면서 아나키즘을 연구하였다.

1927년 10월에는 소비조합을 결성하여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고병희와 조대수는 소비조합을 통해 그 지방의 생산기관과 교통기관을 장악하기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도로서 우리계를 결성하였다. 우리계에는 거의 모든 분야와 지역의 인사들이 총망라되었다. 우리계는 1929년 9월 각 동리에 야학을 개설하여 교육운동을 펼치는 한편, 자주운항운동에 동참하였다.

우리계 관계자들은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의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기업동맹 기선부와 합작하여 제주도-오사카 항로 경영에 나섰다. 제주도-오사카 항로에 취항한 니기기선(尼崎汽船)과 조선우선 양 기선회사의 횡포가 계속되자, 오사카에 있던 제주도 출신 아나키스트들은 고순흠을 중심으로 기업동맹 기선부를 설립하고, 제주도 아나키스트들과 결합하여 자주운항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제주도-오사카 항로를 제주도민 전체의 직영으로 경영하는 것을 목표로 북해우선(北海郵船)으로부터 제2 북해환(北海丸)을 전세내어 운항하였지만, 자금 결핍으로 1929년 5월 녹아도우선(鹿兒島郵船)으로부터 하객 취급업무를 업무위탁받는 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기업동맹 기선부는 자주운항운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아나키즘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업동맹 기선부는 니기기선(尼崎汽船)과 조선우선 두 회사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였던 동아통항조합과도 경쟁하여야 했다. 자주운항을 둘러싼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 간의 대립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다. 양자간의 대립은 결국 공멸로 이어졌다.

일본 오사카에는 소제주도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제주도 출신 아나키스트들은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아나키즘 선전작업과 조직사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신진회 등을 중심으로 반민족단체 상애회와 조선인협회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도 아나키스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자주운항운동을 둘러싼 기존 연구들의 오류를 바로 잡고, 제주도 아나키스트들의 활동을 다소나마 복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토 아나키스트 운동과의 비교를 통해 제주도 아나키스트 운동의 특징도 살펴보았다.

제주도 아나키스트 운동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 제주도 아나키즘은 제3의 사상으로서 기능하였지만, 반민족주의적 입장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료상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1920년대 이후 제주도에서는 민족주의운동이 거의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둘째, 제주도 아나키스트 운동은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운동이 중심을 이루었고, 순정아나키스트와 아나코생디칼리스트 간의 대립은 보이지 않는다. 셋째, 제주도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운동은 본토와는 달리 생산자조합이 아닌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제주도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제주도 소비조합운동은 현재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제주도 소비조합운동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찬흡, 1986~1990, 「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1~14)」『교육제주』 57~69호.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4(2쇄),『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이영권, 2005,『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이영춘·박홍갑·강인구 편, 2009,『일본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제주도지편찬위원회·문화체육과 편, 1996,『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坪江汕二, 1966(개정증보판),『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 巖南堂書店

박경이, 「고순흠(高順欽)에 대하여」『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7HIL_A1893_1_0020115).

염인호, 1993,「일제하 제주도에서 전개된 아나키즘운동」,『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2(호남편)』(역사문제연구소 편), 여강.

양영수, 2016,「제주4·3사건에 대한 아나키즘적 해석」,『제주도연구』 제45집, 제주학회.

塚崎昌之, 2010,「오사카-제주도 항로의 경영과 제주도 민족자본」,『4·3과 역사』 9·10합본.

현기영, 2003.「잃어버린 공동체를 꿈꾸며」,『4·3과 역사』 3호, 제주4·3연구소.

- 자료

『동아일보』『매일신보』.

『共濟』 창간호(1920. 9. 10), 조선노동공제회(이재화·한홍구 편, 1988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총서≫ 1, 경원문화사에 수록).

『독립유공자 공훈록』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asp?id=252&ipp=10).

『自我聲』 創刊號(1926. 3. 20), 自我聲社(朴慶植 編, 1987『在日朝鮮人運動關係機關誌(解放前)』, 韓國學振興院에 수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26099&cid=51955&categoryId=55498).

睥夫申伯雨先生紀念事業會 편, 1973,『경부 신백우』.

<계약증서>
“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임상국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昭和5年 刑公合 第72號)(국가기록원 소장).
“고병희·조대수·고영희·강기찬·김형수의 대구복심법원 판결문”(昭和5年刑控公 第989號)(국가기록원 소장).
“고순흠이 제출한 자료”(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가『한국아나키즘운동사』를 편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 고순흠이 작성하여 1967년 2월 6일 최갑용에게 보낸 자료).
“고순흠이 작성한 이력서”(활자본과 필사본 2종이 있으며, 서로 내용이 약간 다르다 ; 김찬흡씨 소장).
<고순흠후원회 발기문>(단기 4287년, 고순흠후원회 발기인 金鎔均 金光俊 고병희 ; “고순흠이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기업동맹 기선부의 유인물”(1928. 12, 기업동맹 기선부 ; 김찬흡씨 소장).
<기업동맹 기선부 대리부 규정>(김찬흡씨 소장)

<서약증서>(김찬흡씨 소장)
“조대수 비문”(“고순흠이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조선노동공제회”(“고순흠이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조선노동공제회 연혁 대략」,『共濟』창간호(1920. 9. 10).
고순흠,「무정부주의자가 된 동기」(“고순흠이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_____,「조선노동공제회 창업의 동기 및 전말」(“고순흠이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_____,「청년운동을 촉함」(김찬흡씨 소장).
內務省警保局保安課 編,「大正15年中ニ於ケル在留朝鮮人ノ狀況」(朴慶植 編, 1975,『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 三一書房에 수록).
內務省警保局保安課 編,「大正14年中ニ於ケル在留朝鮮人ノ狀況」(1925年 12月)(朴慶植 編, 1975,『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 三一書房에 수록).
정세윤,「창간을 축함」,『공제』창간호(1920. 9. 10).

Abstract

Anarchist Movement in Jeju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Lee, Ho-Ryong*

In Jeju island, Anarchism was first accepted by people who had gone to outside of Jeju such as Seoul or Japan to go to school. Helped by active movements of these pioneers, by 1925, number of anarchists in Jeju island reached 65. Anarchists in Jeju Island were against imperialism and communism, but not particularly against nationalism. Also, anarchosyndicalism was accomodated early in Jeju island, unlike mainland, and formed the mainstream of anarchism in Jeju island along with anarchocommunism. And anarchosyndicalist movement in Jeju island was proceeded by consumer's cooperation instead of syndica.

Jodaesu, Gobyeonghui, Ganggichan, Kim Hyung-soo formed a secret group of anarchists, 'Mungo' to study anarchism. In October 1927, they organized a consumer's association to boycott Japanese goods. Gobyeonghui and Jodaesu and others organized Urigye as a way to control the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In september 1929, Urigye opened night schools at villages and participated in a self-operating-ship movement.

Urigye officials managed Osaka-Jeju waterway line with

* Research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Duksung Women's University

Gieopdongmaeng, Giseonbu. They aimed to gain the direct management of these Osaka-Jeju waterway line by the Jeju citizens. They proceeded activities of propagating anarchism and promoting national consciousness through a self-operating-ship movement.

In Osaka, anarchists from Jeju island proceeded anarchism propaganda works and organization works for people from Jeju island. And they, centered by Sinjinhoi, thrived to overthrow pro-Japanese organizations, Sangaehoi and Joseoninhyeophoi.

Key Words : antiimperialism, anticommunism, anarchosyndicalism, Jodaesu, Gobyeonghui, Ganggichan, Kim Hyung-soo, Goyeonghi, Mungo, consumer's cooperation, Urigye, boycott Japanese goods, Gieopdongmaeng Giseonbu, self-operating-ship movement

교신 : 이호룡 (E-Mail: dragon-56@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7. 01. 21.
심사완료일: 2017. 02. 10.
게재확정일: 2017. 02. 16.